

제자들의 스승 회고 잔잔한 감동

성준화상 열반 22주기 맞아 '...목우록' 펴내

“호랑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엄했지만 속정은 깊었다. 작은 일 한가지라도 잘못되면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중노릇'의 표본을 보이었다.” 말로만 도(道)를 강조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해 보았으므로 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스승에 대한 느낌은 엄격하고 수행의 철저함이다. 특히 삼보정재에 대한 스승의 관념은 병적일 정도로 철저했다.”

계율, 수행, 승공학립에 철저했던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회고와 법어를 정리한 유고집이 현 조계종단의 내분 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화육비구'의 선봉장으로 '실악산 호랑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성준화상(1932~1977·법명 성각, 자호 정호)이 바로 감동의 주인공이다.

성준화상문도회(대표 부산)는 열반 22주기를 맞아 유고집 <성준화상목우록>(불교시대사)를 내놓았다. 신의 요체, 올바른 중노릇, 재가불자의 올바른 수행 등 생전에 제자들과 신도들을 향해 거침없이 일갈한 법문이 수록된 이 유고집은 최근 중단사태와 맞물려



**'제대로 된 중노릇' 강조
청정교단·승풍 확립 나서
현재 난국 헤쳐나갈 '師表'**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성준화상은 철저한 선사이며, 엄격한 율사이며,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제자들은 입을 모은다. 스승의 최대 권력은 청정교단 회복과 승풍확립이었다. 평생 '제대로 된 중노릇'을 강조한 스승은 자신을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제자들을 이끌고자 했다. 출가하면서부터 지계가 청정해야 교단이 바로선다고 굳게 믿었던 스승은 승단의 전통과 계율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엄격했다.



△적조암에서 경산스님과 함께 지린한 성준화상(우).

대중이 3명밖에 안돼 발상을 차려놓고 공양을 하려는 순간 출타하고 돌아온 스님이 3명 이상이면 승가를 이루는 것이니 발우를 펴야 한다고 했던 일, 속초까지 교통비가 왕복 90원인데 100원의 청구서를 올렸다고 세번 반려했던 일, 점심값이 없다고 하자 김밥을 싸가지고 가라고 했던 일 등 제자들이 말하는 수행의 본분에 대한 수많은 일화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성준화상은 수행과 가람수호에도 남다른 권력을 보였다. 입적할 때까지

주지나 종단소임을 맡으면서도 입선(入禪)의 시간을 갖지 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선방에서 잠정하지 않는 것에 비례해 더 철저하게 자신을 다그치는 가행정진을 했다. 또 '선행의 전담이 바로 서야 수행과 포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신명을 가진 스승은 가람수호에 적극적이었다.

성준화상은 20세기 중반 불거진 대처승 정화운동 당시 '정화육비구'의 선봉장이었다. 선암사 석암스님으로부터 "승단은 청정계율을 생명으로 한다. ...수행자들이 갈 곳이 없다면 이 나라 불교는 망하고 만다"라는 소침범문을 듣고 정화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스승은 '정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육신도 아끼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사법사상 초유의 '대법원 합복사건(60년 11월 24일)'을 강행할 정도. 스승의 이러한 의지는 불교운동의 참뜻을 계승하고 청정한 화합의 승단을 이루기 위해 영축회를 창립하면서 직접 쓴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교계의 내분 상황에서 가장 치열한 화두는 '승공학립과 화합' 일 것이다.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청정교단의 회복과 승공학립을 위해 계행, 수행, 전법, 가람수호 등에 남다른 정열과 의지를 투했던 성준화상의 행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책은 현 교계 난국을 헤쳐나가는 사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자 62명이 말하는 '아! 나의 어머니'

연꽃마을 '어머니와 나' 출간

“발을 위해 부처님께 천번 만번 7년동안 굶없이 기도하신 분, 부지런함과 자립을 강조하시고 실천하신 분, 부처님의 실천으로 더 없는 큰 가르침을 주신 분, 노래하는 아들위해 전국 사찰을 다니시며 연등을 달아주시던 어머니...”



법심사(성리원 이사장)·민병천총장(서경대)·서문각 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김홍국씨(가수) 등이 말하는 어머니 모습이다.

《어머니와 나》(연꽃마을)는 서문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비롯 62명의 가슴속에 선명히 각인돼 있는 어머니와의 옛 추억과 사무침이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녹아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가슴이 아련해오기도 하고 푸근한 미소를 자아내게 된다.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연꽃마을에서 '노인 모시는 사회 구현'을 위한 대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난 4년 여동안 연꽃마을 신문에 연재해 온 내용으로 '99 세계 노인의 해에 맞춰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은 “이 책을 통해 소외된 모든 어머니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어 '효의 사회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길 서원한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사인물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풍경	원성이	레
2	영기천도	우봉효	틸
3	생환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4	질책을 버리면 행복이...	일타	불교시대사
5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현장우	리
6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민환	정우사
7	방편개시	대성	여시아문
8	달리라마 예수를 말한다	류시화	내무는새림
9	영기천도를 위한 기도법	화암여	래
10	달리라마가 설법한...	이창호	정우사

구입문의: (02)737-0695

새로운 책



▲당신의 뜻 이라면 지옥인들 못 가리오 (동봉스님 지음)= 정치의 부패상, 돈과 권력 등 부정을 일삼고 있는 일부

단체나 종단의 비리를 비롯 접차 훼손돼 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해결책도 제시한다. 경남 진주 여래원 동봉스님이 쓴 이 책은 자칫 지루하기 쉬운 설법주의의 딱딱한 내용을 구도자의 길에서 관속의 길을 선택한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 등 현실 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일화들을 집목시켜 부드럽게 풀어간다. 다묘아 권. 값 7천5백원.



▲먹물웃에 감춰진 이야기 (정만스님 지음)= 출가수행자들이 먹물웃을 입고 정진하는 것은 다생으로 익혀왔던 오

욕의 습을 버리고 내면 혹은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감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먹물웃 속에 감추어진 삶이 담겨진 진실된 삶이라는 정만스님의 구도세계이다. 때론 가람일처럼, 때론 젊은 빛줄기처럼, 마음을 두드리는 이 세상이 수행자 특유의 향기가 배어 난다. '연기와 법리' '먹물웃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 '업과 집신'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마음의 상. 보살은 가까운 벗, 인연의 끈, 수행자의 마음 등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일상적인 주제들을 감동있게 풀이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권. 값 7천원.



▲평상심 (정희돈 지음)= 평생 후학양성의 길을 걸어온 정희돈 교수(62·영남대 자연자원대학)가 들려주는 참된 삶에

관한 소박한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 철없이 즐기던 초등학교 시절, 가장 불화, 훌륭한 농촌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순진함, 함석헌·유달영·간디·타고르 그리고 사르트르와 실존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생의 또다른 가치가 있음을 발견한 대학시절 등의 추억들이다. 대추를 따면서, 법당을 돌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등 모두 3장으로 구성. 2장 법당 뒤를 둘러 편에는 '평상심' 나의 머리맡에 있는 불경 '불교와 생명' '부처님 거울에 비친 불자교수' 등을 주제로 저자의 독특한 심신과 소중한 삶의 진리가 녹아 있다. 거리문학제 권. 값 7천원.

■ 도올 김용옥 박사 '금강경 강해'

체험적 해설로 푼 금강경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금강경>을 독창적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씨(도올서원 강주)가 새롭게 강론하여 해석했다.

신간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 강해>(통나무 권)는 저자의 해박한 불교교리와 사상사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반야사상의 학자인 에드워드 콘체의 주석을 참고하여 명료하고 통찰력 있는 강해가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가장 완결된 형태의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본의 구미라집원본을 저본으로 한 정확한 판본과 치밀한 주석, 그리고 고풍스런 우리말을 사용하여 마음에 와 닿는 체험적 해설을 했다는 점이다.

한편 도올 김용옥박사는 지난 10월 24일 화계사 대웅전에서 국제선원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법회에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박사는 "새 천년을 앞두고 우리는 대승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삶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대승정신의 출발은 반야이며 곧 금강의 지혜이다"고 역설했다. 강연후 신간 <금강경 강해> 사인회를 가졌다. 값 9천8백원. <최경수 명예기자>

선학과 현학 김진무 옮김

선학과 현학의 공통점과 다른점

중국 역사에서 위진시대 약 1백여 년간 흥성한 현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운주사 선학총서 두번째 권인 <선학과 현학>(김진무 역)은 선학과 현학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사상사적 서술과 비교철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선학과 현학의 갈래, 특징, 같은 점과 다른 점 및 상호융섭과 침투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선의 향기 장화남 옮김

문학적 향취지닌 선문답 100가지

달마스님이 동쪽으로 건너와 우리에게 전해준 깨달음의 불씨는 무엇이었을까. 지혜를 구하는 제자의 물음에 버럭 호통을 지르지만 입제스님의 속내는 무엇일까. <선의 향기>(씨앗을 뿌리는 사람 권)는 달마이후 1500여 년에 걸쳐 전해온 맑은 문학적 향취를 지닌 선문답 100가지를 쉽고 간결한 풀이와 함께 소개한 책이다. 각 구절의 뜻과 통하는 선문답의 본래 의미를 선사들의 일화나 일례를 통해 풀이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신라보살계 사상사 연구 최원식 지음

보살계 사상이 신라에 미친 영향

<신라보살계 사상사 연구>(민족사 권)는 신라사회에 보살계가 수용·유포된 경위와 신라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조망한 후 최원식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법방보살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 책은 보살계 사상이 재가신도 확산, 왕권 합리화 및 선정(善政) 유도, 민중들의 평등의식 고양, 유·불간의 대립 또는 갈등 완화 해소 등의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값 1만3천원.

신간 절, 알고 보니 세상 속에 있더라

월간 날마다 좋은날

성재도 글/사진 신국관 220쪽 / 값 5,000원

글쓴이 성재도는 1988년에 부산불교교육원을 개원하여 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쉽게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산불교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 우리 문화기행의 답사교육을 통하여 절에 갈 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엮었습니다.

절에서 만나는 돌 하나, 잔물 하나, 그림 하나에 담긴 뜻을 150여장의 사진과 함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하고 싶었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쉬운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귀로 듣고 얻는 것은 눈으로 보고 얻는 것보다 넓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얻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보다 깊지 못하다.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정원스님 추천사 중에서

월마다 좋은날은 ...
날마다 좋은날은 주머니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좋은날은 지혜로운 하루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함께 살아가는 벗님(도반)들과 더불어 마음에 새기고 싶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부처님과 옛 스님들께서 남기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삶을 가꾸는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 전하는 월간지입니다.

성재도 편집 / 10 x 19cm / 52쪽
값 1,000원
(1년 정기구독 : 10,000원)

도서출판 **날마다 좋은날** 대표전화 : 051-466-4080 전송 : 051-466-4079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43-4번지